

보도시점 2026. 10. 21.(수) 11:00 배포 2026. 10. 21.(수) 10:00

피지컬 AI시대, 중소기업 혁신전략

- 재경부, 중기중앙회와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권대영 차관,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재정·세제·금융·규제를 하나로 묶을 것”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0.21일(수) 10:50 롯데호텔 제주에서 ‘피지컬 AI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은?’을 주제로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피지컬 AI로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을 비롯한 산·학·연 피지컬 AI 전문가와 중소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제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 공장에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피지컬 AI 확산을 위해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재정·세제·금융·규제를 하나로 묶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AI의 2막, 중소기업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 “에이전틱·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에 대응해 업무와 제조현장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AI 전환과 피지컬 AI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전략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4-215-4930)
		담당자	사무관	양지연 (didwldus48@korea.kr)
	중소기업중앙회 AI혁신사업팀	담당자	팀 장	이지연 (02-2124-3125)
			과 장	강태규 (02-2124-3126)

참고 1

중기중앙회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개요

□ (행사명) ‘피지컬 AI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은?’

(부제) AI로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찾다

□ (일시/장소) ‘26.10.21(화) 10:50~12:20 / 롯데호텔 제주

□ (주최·주관) 재정경제부·중기중앙회 공동주최

□ (참석) 박영선 위원장, 김준하 AI로보틱스 분과위원장 등 전략
경제자문단 위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대표 등 200여명

< 세부 프로그램 >

시 간		내 용	
10:50-10:55	5'	참석자 소개 및 기념촬영	
10:55-10:58	3'	개회사(중기중앙회장)	
10:58-11:00	2'	재정경제부 1차관 축사(영상)	
11:00-11:15	15'	기조 연설	AI의 2막, 중소기업의 미래를 바꾸다 - 박영선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11:15-11:45	35'	주제 발표	피지컬 AI의 비전과 中企 데이터 자산화 방안 - 김준하 전략경제자문단 AI로보틱스 분과위원장 AI 공동혁신과 중소기업 성장전략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11:45-12:20	35'	패널 토론	[좌장] 박영선 前 중기부 장관 [패널] 발표자 포함 8인 한병준 중기중앙회 부회장 / 장용환 경인주물 이사장 오민석 메가존 부사장 / 장영재 KAIST 교수 권순재 중기부 국장 / 송창중 과기부 팀장
12:20		폐회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제1차관 권대영입니다.

제19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과
피지컬 AI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문 회장님과 박영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
공장에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생산성 혁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의 고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비용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가 그 어려움의 첫걸음을 함께 떤겠습니다.

첫째, 우리 숙련공의 손끝 노하우를
데이터로 남기겠습니다.
업종별 AI 모델을 만들어
바로 쓸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내년 500곳 이상의 현장에서
피지컬 AI 실증을 추진합니다.

먼저 해본 공장의 성과를
이웃 공장이 따라 쓰도록
지역 산단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금이 막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피지컬 AI 예산 3조 1천억 원,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산은, 기은, 신·기보 등 정책 자금을 통해
현장의 AI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관제부처와 함께 원팀이 되어
재정·세제·금융·규제를 하나로 묶겠습니다.

현장에서 막히는 일이 있으시면
부처 칸막이를 없애
재정부가 그 심부름꾼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두려움 없이 AI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800만 중소기업이
AI 시대의 팔로워가 아닌 리더가 되도록
정부가 곁에서 함께 적극 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는
전략경제자문단과 함께 정책에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